쓰레기 종량제, 이렇게 준비한다.

· 쓰레기 최소화, 제과포장 재활용, 비용절감

버리는 양만큼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제과점에서는 자체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소비자의 불필요한 포장 기피에 따라 재활용품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 요구 된다.

제과 기계의 새로운 이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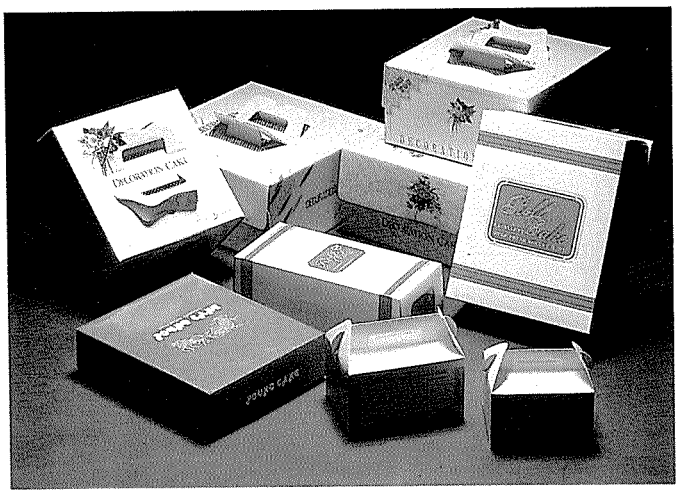
"리스와 렌탈"

비싼 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대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리스와 렌탈이다.
특히 리스는 대여 품목의 금액 한도와 원리금 상환에 부담이 있지만
몇개 업소가 공동으로 대여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쓰레기 종량제, 이렇게 준비한다.

쓰레기 최소화, 제과포장 재활용, 비용절감

쓰레기 종량제로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제과점의 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으로 전환을 통해 비용도 줄이고
소비자의 불필요한 포장 기피 성향에 대응할 수도 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전 국민의 생활은 물론 산업 전반에 거쳐 일파만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버리는 양만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비용 부담의 변화로 너나 없이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제조업체도 이런 소비자의 성향을 인식해 생산,유통,소비에 이르기까지 불필요한 쓰레기 발생 최소화와 재활용 소재로의 대체 등에 온 힘을 쓰고 있다.

그리고 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 여파는 우리 제과업계도 해당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우선 제과점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문제와 함께 최근 불필요한 포장을 기피하는 소비자의 성향은 자칫 제과점의 이용을 조금이나마 떨어뜨릴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제과점의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의 일반적 이해와 쓰레기 발생 최소화 방안,재활용 포장으로의 전환 등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 본다.

버리는 양만큼 비용 부담,업소 부담 가중

올 1월 1일자로 전격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 하고 재활용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비용 부담과 배출 방법,재활용 대상 품목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다.

이중 가장 큰 변화는 비용 부담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과거 국민의 쓰레기 발생 비용 부담 방식은 일정액의 수거료만 내면 쓰레기 양은 관계가 없었으나 현행 방식은 수거료 대신 규격 봉투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변경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군,구마다 수퍼마켓,아파트 관리 사무실 등을 지정판매소로 지정했으며 지역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으나 1매당 가정용 10 l (140원),20 l (270원),50 l (660원), 사업소용 20 l (290), 50 l (720), 75 l (1,080원),100 l (1,440원)로 판매하고 있다.

또 과거와 달라진 점은 쓰레기 배출 방법. 일반쓰레기의 경우 반드시 거주 지역의 자치 단체명이 기재된 규격 봉투를 사용해야 하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분리 배출하고 대형 쓰레기는 별도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 쓰레기의 경우 지역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거해 가지 않으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배출방법을 어길 때 환경부 기준에 따르면 야산·공원 등 투기 금지 지역에 쓰레기를 버리면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규격 봉투 미 사용시나 지정 장소 외 투기 시 1차 적발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기에 더 많이 버리기 위해 봉투를 제대로 묶지 않고 내놓으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재활용품의 처리는 일반주택의 경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재활용이 되는 종이류와 기타류(병,캔,고철,플라스틱)로 구분, 집앞에 내놓으면 되며,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서는 지정된 장소에 비치된 종이류,병류,캔류,고철류,플라스틱류 수거함에 분리 배출해야 한다.

이밖에 냉장고,장롱 등 대형 쓰레기는

주소,이름,쓰레기의 종류,크기 등을 시·군·구에 전화로 신고하면 공무원이 방문 수거후 비용 청구서를 발급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번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정부는 과거에 비해 38%의 쓰레기 감량 효과와 4,000억원의 처리 비용 절감을 꾀한다는 계획이나 국민의 부담은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1인당 평균 한달 쓰레기 배출량은 77ℓ. 4인 가족 기준일 때 규격 봉투구입에 따른 비용 부담은 4,500원이 된다. 쓰레기를 줄여 1인당 60ℓ 정도를 배출해도 한 가족의 한달 부담 비용은 3,600원 정도이다.

가정보다 더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는 업소의 부담은 더욱 크다. 백화점, 편의점 등 유통 업소의 경우 30평 기준 월 30~5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비자 불필요한 포장 기피현상 대두

이에 따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일반 국민이나 업소,업체들은 안간힘을 쓰고 있다. 쓰레기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야채나 과일 껍질을 말려 배출하고 물품 구입시 불필요한 포장을 기피하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도 포장재 줄이기 비상에 들어갔다. 백화점은 장바구니를 증정하고 전자 제품 배달시 스티로폼 등의 포장을 수거하고 있으며, 생산업체도 내용물을 헌 용기에 다시 담아 쓸 수 있는 이른바 '리필'제품이 인기를 끌자 이들 제품의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월부터 시행된 비닐 코팅 광고지의 배포 금지 및 60평 이상 대형 유통 업소의 비닐 봉지 사용 금지가 계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위반 업소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8월부터는 스티로폼 및 합성 수지로 제조된 1회용 도시락 용기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포장 줄이기와

〈표1〉재활용 되는 품목, 안되는 품목 예시

종류	가능품목	안되는 품목
종이류	—신문지, 책, 노트,복사지등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종이컵, 우유팩 —종이상자류(과자·과일상자등) ⊙배출요령: 종이류에 붙은 스프링 클립 테이프등을 제거하고 종이컵, 우유팩의 안을 깨끗이 씻어 일정한 부피로 묶어서 배출	—비닐코팅된 종이류 (광고지, 포장지, 각종 홍보 유인물등)
병류	—음료수병,주류병 —드링크병, 기타병 ⊙배출요령: 담배꽁초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배출	—유백색(우유빛깔) 유리병 —거울, 각종도자기류, 내열식기류 —형광등,전구등
캔류	—음료용,식품용 캔 —분유,통조림등 캔 —에어졸, 부탄가스용 캔 ⊙배출요령:담배꽁초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서 배출하여 에어졸,부탄가스용 캔은 구멍을 뚫어서 배출	
고철류	—공구, 철사,못 철판등 쇠붙이 —알루미늄,스텐,구리 알루미늄새시등 ⊙배출요령: 고철에 붙어있는 고무나 플라스틱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부피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찌그러뜨려서 묶어 배출	—페인트통, 오일통등 유해물 포장통
의류	—면제품류: 순모양복, 내의등 ⊙배출요령: 단추,지퍼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에 젖지 않게 하여 묶어서 배출	
플라스틱류	—페트병류 ·음료수병(주스·콜라·생수병등), ·간장병,식용유병등 —각종식·음료용기류 ·야구르트병,사와병 ·샴푸, 세제 용기류 ·막걸리통, 물통, 우유병 등 —기타용기류상자(맥주,콜라,사이다등) ·쓰레기통,쓰레받이. ·물바가지,머리빗등 ⊙배출방법: 용기표면에 1,2,3,4,5,6번으로 재질 분류표시된 플라스틱제품에 한해 내용물을 씻은 후 배출	—나일론 제품 —한복, 담요,솜,베개 —카페트, 가죽제품, 1회용 기저귀 등 —열에 잘 녹지 않는 플라스틱 용기 ·전화기, 소켓,다리미·냄비의 손잡이,전기전열기등 ·단추,화장품용기,식기류, 재떨이, 쟁반 등 —PVC류 용기 ·파이프,빗물홈통,장판,전선등 —복합재질 용기 ·과자·라면봉지,식품포장용기등 —기타 재활용 경제성이 없는 용기 ·가전제품 케이스, 함지박, 정화조 ·비닐봉지,스티로폴, 1회용품등 ·볼펜 등 필기구 —플라스틱과 철사가 합성돼 있는 제품(옷걸이 등)

재활용 소재로의 전환에 힘쓰고 있다.

이는 쓰레기 발생 요인 최소화와 재활용 소재로의 전환에 힘쓰고 있다.

이는 쓰레기 발생 요인 최소화와 재활용 소재로의 전환은 유통 업체나 제조 업체 자체로는 비용이 더 소요되지만 소비자의 쓰레기 기피 성향을 고려해 자사 제품의 이미지를 높이지 않는 한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인식에서이다.

이런 전반적인 추세에 발맞춰 제과업계도 쓰레기 종량제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미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제과점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쓰레기 발생을 우려해 불필요한 포장을 기피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재활용으로 전환이 가능한 포장 품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은 프랜차이즈 업체들로 쓰레기 종량제에 대응해 포장 횟수 줄이기 및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 품목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제과 품목 중 출고가 대비 포장 비용이 10%를 차지하는 케이크박스를 비롯 15%의 선물 세트, 10%의 초컬릿 등 제품의 불필요한 포장을 줄임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현재 종이류 중 비닐 코팅으로 재활용이 안되는 포장을 코팅이 없는 종이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디자인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종이로의 대체와 제품의 보관 및 포장 기능상 문제가 없는 범의 내에서 쓰레기 배출시 포장 부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며, 일부 업체는 추가 비용을 감소하고서라도 비닐 봉투의 경우 값 비싼 재생 종이 봉투로의 교체를 검토 중이기도 하다.

반면 윈도우베이커리는 대부분이 자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양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 소비자의 불필요한 포장 기피에 따른 대책은 거의 세우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프랜차이즈 업체, 재활용 포장 대체 등 활발한 움직임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소비자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재활용 가능 품목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중 포장부문의 대체 가능 방법과 소비자의 포장 기피 성향을 해결할 방안은 무엇일까?

먼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재활용이 되는 품목은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종이류, 병류, 캔류, 고철류, 의류, 플라스틱류로 크게 나뉜다. 이 구분은 수거의 용이성과 재활용의 경제성을 고려,배출시 지켜야 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종이류의 경우 비닐 코팅이 되지 않은 모든 종이류는 재활용이 되며 비닐 코팅이 돼 있는 종이컵과 우유팩은 예외로 재활용 품목이다. 이들 종이류는 종이에 붙은 이물질 즉 스프링이나 합성수지, 테이프 등을 제거해야 하며,우유 팩은 내용물을 씻고 말려 같은 우유팩끼리 일정한 부피로 묶어 배출해야 재활용품이 될 수 있다.

병류의 경우 우유빛 병을 제외하고 모든 병류가 재활용이 되는데 역시 병류 이외의 이물질과 내용물을 제거해야 하며, 캔류도 이물질을 제거를 해야 된다. 단 캔류 중 에어졸·부탄 가스 캔은 구멍을 내야 재활용이 가능하다.

고철류는 페인트통,오일통 등 유해물 포장통과 이물질을 제거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며, 의류는 나일론 제품, 카페트, 가죽, 1회용 기저귀 등을 제외한 면 제품류가 재활용품이다.

플라스틱류는 열에 잘 녹지 않는 플라스틱 용기, PVC 용기, 복합 재질의 합성수지 용기, 기타 재활용의 경제성이 없는 플라스틱 용기를 제외하곤 재활용품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중 제과점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이 고철류와 의류를 제외한 종이류와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이다.

그러므로 제품 제조시 생기는 빵,케이크 부스러기나 재료 찌꺼기 등 자체 쓰레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밖에 버려야 할 쓰레기 중 표에 예시된 가능 품목을 고르고 배출시 지켜야 할 사항인 이물질 제거와 배출 방법을 준수하면 자세한 사항을 몰라 일반 쓰레기로 버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비닐계 포장 재활용 대체 희박,비닐 코팅 종이류는 가능

그러나 포장 부문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현재 제과점에서 사용되는 포장은 종이류 포장과 비닐계 포장으로 나뉘며 이 2가지가 복합된 포장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최근 쓰레기 발생과 관련 불필요한 포장을 기피하는 소비자의 성향에 대처하기 위한 재활용으로의 전환 면에서 제과점 포장 중 일부 비닐 코팅 종이 포장과 대부분의 비닐 포장이 재활용이 안돼 어려움이 있다.

현재 제과점에서 비닐 코팅된 대표적 종이 포장은 케이크 박스. 대부분의 기성제품은 그렇지 않으나 일부 준양산 업체와 주문품의 경우 많은 케이크 박스의 겉포장이 비닐 코팅돼 있고 케이크를 올려놓는 밑판 윗면은 100% 비닐 코팅돼 있다.

이밖에 포장에서 위생적인 면과 인쇄를 선명하게 돋보이게 하고 고급스러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일부 제품의 종이 박스와 종이 쇼핑 백에 비닐 코팅이 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비닐 코팅된 종이 박스와 종이쇼핑백, 케이크 박스 겉 포장을 종이 재질로 전환 중이다. 그러나 이중 케이크 밑판 윗면의 경우는 직접 제품에 닿는 위생 면과 관련 대체 가능한 재질이 컵紙 정도인데 비용면에 2배 정도 부담이 많아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케이크 박스를 제외한 다른 종이 박스는 충분히 순수 종이 재질로 전환해도 위생에 문제가 없고 코팅을 안하면 비용이 절감되므로 교체한다는 입장이다.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 업체의 포장 재료 교체 시안은 이런 입장을 잘 반영하고 있다.

〈표 2〉에서 포장 구분의 上과 下는 위와 아래로 분리된 겉 포장을 의미하며 ○표는 현재 비닐 코팅된 부분이다.그리고 비고 란은 현재 위 아래 겉 포장 안 즉 제품의 포장 상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비고란의 포장을 현재 랩이나 은박지,비닐 포장을 사용하고 있어 제품이 상,하 겉 포장에 직접 닿을 염려가 없으므로 비닐 코팅된 겉 포장을 전면 순수 종이 재질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안에 따르면 이 업체의 경우는 비고란의 포장 마저도 더 나아가 유산지 등으로 교체할 계획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포장이 가장 화려한 선물 세트를 비롯해 제품의 포장 횟수를 줄인다는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비용절감 뿐 아니라 지난 93년 9월 시행된 '제품의 포장 방법 및 포장재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오는 96년부터는 더욱 강화되어 이를 어길 경우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는 예상에서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현재 제과류의 포장은 포장 공간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포장 횟수는 2회 이내로 제한돼 있다.

낱개 포장은 포장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일반적인 제품 포장이 2회임을 감안하면 여기에 불필요한 포장이 1회라도 추가될 때는 제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포장 중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비닐계 포장은 재활용 품목이 아니고 대체할 만한 소재가 거의 없는 형편이어서 전환의 어려움이 있다.

표2 비닐코팅 포장 대체 가능안

품목	포장구분		제품포장	비닐코팅대체 가능성
	上	下		
롤 케이크		○	랩 사용	가능
커피롤케이크		○	바닥에 은박지 사용	가능
종합 선물세트	○	○	비닐사용	가능
비스켓	○		비닐사용	가능
쿠키	○		비닐사용	가능
스위트롤		○	랩 사용	가능
파이스폰지		○	바닥에 은박지 사용	가능
사각케이크		○	바닥에 은박지 사용	가능

불필요 포장 최소화와 재활용으로 비용 절감 기대

현재 비닐계 포장의 주종을 이루는 PP, OPP 소재는 빵류나 낱개 제품에 이용되고 있고 하이덴(HDPE)은 비닐 봉투로 사용되고 있다.

이중 가장 사용 횟수가 많은 PP, OPP 소재는 제품의 판매, 보존 특성상 외형이 겉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선택된 포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종이 포장으로의 대체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하이덴 소재의 비닐 봉투는 종이 봉투로 전환이 가능하나 2~3배 비용이 더 든다는 것이 걸림돌이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현실적으로 대체가 어려운 PP, OPP, 쿠키용 세트 등 PVC소재는 포기하고 하이덴 비닐 봉투를 재생 종이나 환경 차원에서 분해성 비닐 소재로 전환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하이덴 소재 대신 재생 종이 사용이나 분해성 비닐로의 대체는 기존 소재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특히 분해성 비닐의 경우 현 재활용 수거 체계에 재활용이 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맞아 제과점에서는 자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표1〉에 예시된 재활용 품목과 배출방법을 지키면 자세한 사항을 몰라 일반 쓰레기로 버림으로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또 전반적인 소비자의 쓰레기 발생 요인의 기피 추세에 맞춰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의 포장 교체와 불필요한 포장 최소화를 고려해 보아야 할 시기이다.

물론 기존에 사용해 오던 포장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비닐계 포장이 재활용이 안되고 대체 소재가 없는 만큼 비닐코팅 사용 종이 포장류만 가능하며 이 역시 해당 품목이 많지 않다. 비닐계 포장지 중 대체 가능한 하이덴 비닐 봉투도 종이 봉투로의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도 크다.

그러나 기성품 포장과 주문 포장을 이용하는 제과점마다의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한 해당 품목이 있을 경우 〈표 2〉에서 알 수 있 듯 비닐 코팅 포장을 종이 포장으로 전환하거나 불필요한 포장을 최소화할 경우 위생에 문제가 없고 그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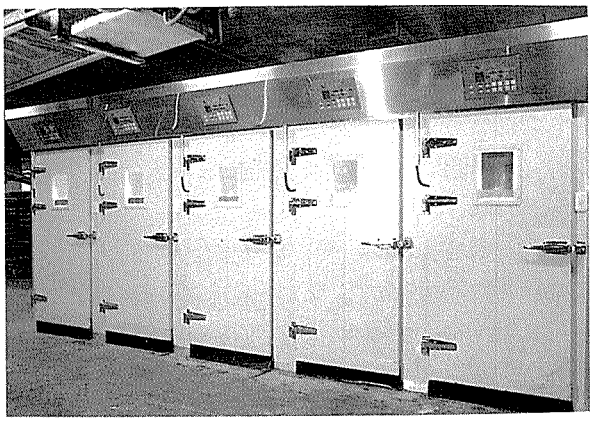
여기에 자신의 제과점에서는 최대한 재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POP나 제품 판매시 어떤 것이 재활용이 되며 종이류와 비닐류가 접합된 포장의 경우 비닐류를 제거하면 재활용이 된다는 것을 홍보하면 제과점 이미지 향상을 꾀할 수도 있다. 내

제과 기계의 새로운 이용 방안 "리스와 렌탈"

리스 자금은 타 금융사 융자에 비해
소요자금의 100%를 조달한다는 점과 절차의가신속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윈도우베이커리에서 이용하는 데는 숙지해야 할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제조 설비를 신규 도입하거나 교체 보강을 고려해 본 업주라면 적지 않은 비용 부담 때문에 한번쯤은 다른 방법으로 기계를 이용할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에 제과점에서 비싼 기계를 구입하지 않고도 대여 형식을 통해 필요한 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리스와 렌탈에 대해 알아본다.



리스는 장기 대여, 렌탈은 단기 대여로 구분

쉽게 정의하면 리스는 현금 구입 대신 장기간 기계를 대여하는 형태의 설비 금융으로 기계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비 형태의 원금과 사용료 형태의 이자를 갚아나가는 형태이며, 렌탈은 대여 형식은 같으나 사용 기간이 짧은 대신 높은 금리의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리스는 새로운 기계 설비를 조달하고 싶지만 구입자금이 부족한 경우, 기술혁신에 의한 기계의 쇠퇴화를 막고 싶은 경우, 구입에 따르는 사무절차상의 번잡을 피하고 싶은 경우, 담보제공능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 곤란한 경우 등에 이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렌탈의 경우 이용하는 부분과 대상이 리스에 비해 폭넓지 못한데 기계가 필요는 하지만 직접 구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즉 주로 렌탈이용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기기 사용, 최신기기의 시험 사용, 필요한 기간동안 효율적인 사용, 전시회 등에 쓰이는데 렌탈기기에 대한 보험 및 고장수리등 일체의 유지보수책임은 렌탈회사가 부담한다.

리스는 대여 물품의 원금과 금리 상환방식

먼저 리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구입하고 자금 부족분은 신용이나 보증·담보를 설정한 후 계약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 그리고 구입한 물건에 대한 잔존가치 10%를 상환하는 체제로 되어있다.

은행의 대출제도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각 리스회사가 자체 지정한 경제신문(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등)에 발표되는 실세금리에 1%를 더한 금리를 설정해 원금과 금리를 합쳐 원리금을 상환하는 형식이다.

변동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리스회사와 계약할 때의 원리금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렌탈은 1개월을 기본으로하여 이용자의 형편에 맞게 끔 기간을 자유롭게 정하여 연장할 수 있고 또한 중도 해약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렌탈료 역시 1개월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1개월 미만이거나 1개월 이상을 사용하면 할인이 되는 반면 계약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리스보다 금리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물론, 장기 렌탈의 경우 렌탈 기간이 길며 단기 렌탈의 렌탈료보다 저렴하고 통산 1~3년을 양도받을 수 있다 .

이상에서 알 수 있듯 렌탈은 리스와 달리 사용기간이 짧으며 장기 렌탈의 경우도 1~3년까지가 일반적이다. 또한 꼭 필요한 기계를 단기간 사용하는 특성으로 인해 금리가 상당히 높으므로 제과점에서 사

표1 리스 대여 산출

리스금액	월원금부담액 (60개월))	월금리부담액 (연12%기준)	월총부담액	만기부담총액 (5년기준)
3천만원	50만원	30만원	80만원	4, 800만원
4천만원	66만원	40만원	106만원	6, 400만원
5천만원	83만원	50만원	130만원	8, 000만원
6천만원	100만원	60만원	160만원	9, 600만원

용할 경우는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리스회사가 타 금융사와 비교해 효과적이고 선호적인 요소가 있다면 직접 구입에 따른 소요 자금의 100%를 조달하면서도 복잡하지 않은 이용절차에 있다. 담보에 있어서도 이용자의 신용 상태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반면, 리스는 보증금이 필요한데 리스 계약상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보증'을 취득원가의 5%이내의 현금을 예치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이 보증금은 리스 계약기간 만료시 이용자에게 반환하게 되어 있다.

리스 기간은 리스 물건을 법으로 정해 놓은 연수(年數)의 60%이상(5년이하의 물건은 70%이상)으로 하되, 이용자와 리스회사가 결정하고 물건이 이용자에게 설치 완료되어 물건의 수령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리스 기간이 시작된다.

리스 기간중에는 원칙적으로 중도 해약이 인정되지 않으며, 중도 해약시에 소정의 규정손실금(미회수 취득원가+취득 원가의 10% 상당)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

리스료는 물건 구입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물건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리스료에는 변함이 없고, 취득한 원가와 리스 기간, 리스가격률에 의한 원화와 외화로 구분되어 연금현가할인방식(年金現價割引方式)에 의해 계산되어진다.

연금현가할인방식이란 매회 정액 지급되는 리스료는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금과 이자의 구성비율이 변동되어 원금은 증가하고, 이자는 감소 추세를 나타내는 방식이다.

양산업체나 프랜차이즈의 경우 신공장 건설·회사이전·기계구입 ·대규모 확장공사 등 돈을 필요로 할 때 리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리스회사에는 나름대로의 약관에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하한가 마지노선이 있다. 대략 3,000만원 정도를 기준선으로 잡아 그 수치를 넘어설 경우 회사 차원의 이익 추구에 있어 계약 성립을 가져오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계열사 형태인 렌탈(Rentel)쪽으로 유도하고 있다.

표2 리스 회사 안내

회사명	한국산업리스	한국개발리스	한일리스
전화번호	(02)316-0114	(02)737-3575	(02)757-4121
지점및 대리점	부산지점 (051)462-1332 대구지점 (053)650-7700 광주지점 (062)288-1181	부산지점 (051)462-4131 대구지점 (053)756-1101 인천지점 (032)420-1300 대전지점 (042)255-2551	부산지점 (051)805-4121

5년간 3,000만원 대여 경우 월 80만원 부담

그러나 이 리스 제도 역시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 최저 기준을 3,000만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값비싼 수입기계나 기계를 여러가지 대여해야 최저 기준을 넘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국내 기계보다 값이 비싼 수입기계를 2가지 이상 대여해야 한다. 현재 수입 기계 회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개업이나 기계 교체에 필요한 품목을 예로 들면 급속 냉동고 H4의 경우 3,000만원대, 데크 오븐 3단 9매가 1,500만원대 , 수동 파이롤라 600만원대, 스파이럴 믹서 1,000만원대, 로타리 오븐(철판) 2,500~3,000만원대이고 믹서기가 700만원대이다.

따라서 리스 대여시 부담하는 비용을 산출해 보면 여러가지 기계를 대여해 3,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5년간 대여한다고 가정할때 표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5년은 60개월이므로 우선은 월 50만원의 기계감가상각에 따른 원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 리스의 연 금리가 11%라고 할 때 리스 회사는 앞에서 설명했듯 여기에 1%를 더하므로 12%가 된다.

따라서 3,000만원의 1년 연 금리 360만원을 12달로 나누면 월금리 부담액은 30만원이 된다. 따라서 3,000만원 상당의 제품 리스 경우 총 월 부담액은 원금 50만원과 연금리에 따른 월 부담액 30만원을 합쳐 80만원을 60개월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산출법에 따르면 표1에서 알 수 있듯 4,000만원 리스 경우 총 월 부담액은 106만원이고 5,000만원 리스 경우는 133만원이 된다.

단 리스시 보증금 형식이 있어 리스 대여 품목의 액수 5%를 신청에 앞서 예치해야 하는 데 이는 계약 종료 후 반환받을 수 있다.

3대 리스회사를 비롯 지방업체 속속출현

리스산업은 1960년대 한국산업리스(주)를 시발로 뒤를 이은 회사들의 설립 효과를 비롯 지방진출등으로 지금은 40여개의 넘어서고 있고 1994년을 기준으로 리스 계약액이 2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그리고 리스의 문을 처음 두드린 한국산업리스를 비롯 한국개발리스, 한일리스가 3대 산맥으로 전체 리스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다.

리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전문가의 설명과 상담,문의를 필요로 할때 리스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3대회사를 찾으면 편리하다. 각 지역에도 지방리스가 속속 출현하고 있어 광주에는 광은리스, 중부에는 대전리스 등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우리 업계에서도 리스의 구조와 상황을 접하는 데 있어 한정적 제한이 따르지만, 업계차원에서 필요한 사항과 여건을 습득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자영업체의 경우 공동구입방안 등은 업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므로 정보를 정확하게 숙지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